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ASEAN 보건부 장관급회의 국제행사 참여

☐ 과제명

한-아세안 보건복지분야 협력방향 및 이행전략 수립

☐ 출장기간

2026.9.7.(월)~2026.9.12.(토)

☐ 출장국가(도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출장자

이서현 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9.7	한국 -말레이시아	-	-	출국 및 쿠알라룸푸르 이동
9.8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ASEAN meeting, JW Marriott Kuala Lumpur	Health Ministers of ASEAN member states, Jennifer dela Rosa from ASEAN Secretariat	PrepSOMHD 11 th APTHMM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사전준비 고위급회의
9.9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Preparatory SOMHD with Dialogue Partners, 17th AHMM Retreat, AHMM Sessions and Side Event
9.10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11th ASEAN+3 Health Ministers Meeting
9.11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3rd ASEAN - Republic of Korea Health Ministers Meeting
9.12	말레이시아- 한국	-	-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대한민국 출발 / 말레이시아 도착
일 시	2026.9.7.(월)
장 소	인천국제공항 → 쿠알라룸푸르 공항
참석자	이서현 연구원
ASEAN 보건부 장관급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여 리스본 도착 후 행사 준비 및 자료 검토	
②	PrepSOMHD 11 th APTHMM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사전준비 고위급회의
일 시	2026.9.8.(화) 오전&오후
장 소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참석자	이서현 연구원
○ (주제) - 장관회의 전체 주제: 「형평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시스템을 향한 아세안의 연대(Healthy ASEAN Together Towards Equitable, Future-Ready Health Systems)」 - 장관회의 라운드테이블 주제: 「아세안+3 전반의 보건시스템 동기화: 혁신 확산 및 건강한 장수사회 대응(Synchronising Health Systems, Scaling Innovation and Longevity across ASEAN Plus Three)」 ○ (주요내용) - 금번 회의는 제 11 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사전 조정회의로서, 장관회의 의제·라운드테이블 주제·공동성명·결과보고서 및 2026~2028 년 협력 우선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음. - 참석국은 포스트 팬데믹 환경에서 보건안보와 회복력 있는 보건시스템 구축이 여전히 핵심 공동과제라는 점에 공감함. -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보건시스템은 질병감시, 공중보건 비상대응,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건강한 노화 대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됨. - 다만 디지털 보건의 확대 과정에서 국가 간 역량 격차, 데이터 상호운용성, 개인정보보호·사이버보안, 제도·규제 정비 및 보건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 2026~2028 년 협력은 ASHA 2026~2030 과 아세안 보건클러스터 체계에 맞추어, 비감염성질환·정신건강·건강한 노화·보건안보·UHC·보건인력·원헬스·AMR·디지털 보건 등 상호 연계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임.	

- 공동성명은 사전준비회의에서 문안 조정을 마치고 한·중·일 및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장관회의에서 원활히 채택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 개최 예정인 제 11 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서 사전준비 고위급회의 결과보고서, 2026~2028 년 협력 우선분야 및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보고·채택할 예정임.
-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보건시스템 동기화, 혁신 확산, 디지털 공중보건, 건강한 장수사회, 보건안보 및 형평적 보건의료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장관급 정책대화 진행 예정.
- 한국은 감염병 대응, 공중보건 데이터·디지털 보건, 보건인력 역량강화, UHC, 고령화·정신건강 등 관련 분야에서 아세안 및 한·중·일 파트너와의 공동사업·지식교류 기회를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음.
- ASHA 2026~2030 과 연계된 아세안 보건클러스터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경험·기술역량·훈련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사무국 및 회원국과 지속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장관회의 결과와 공동성명 채택 이후 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측 관심 협력사업의 후속 추진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제 12 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는 2028 년 미얀마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차기 의장국과의 협력 방향 및 중장기 의제 발굴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Preparatory SOMHD with Dialogue Partners, 17th AHMM Retreat, AHMM Sessions and Side Event
일 시	2026.9.9.(수) 오전&오후
장 소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참석자	이서현 연구원

○ (주제)

- 제 17 차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주제: 「형평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시스템을 향한 건강한 아세안의 연대(Healthy ASEAN: Together Towards Equitable, Future-Ready Health Systems)」

○ (주요 내용)

- ASHA 2026~2030 을 공식 출범하여 향후 5 년간 아세안 보건협력의 공동 비전, 우선과제 및 이행방향을 대내외에 공표함.
- 기존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2021~2025 의 이행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보건협력 의제를 보다 전략적·집중적·조정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
- 보건 형평성, 회복력 있는 보건시스템, 보건안보, 보편적 건강보장(UHC), 원헬스, 디지털 보건 및 식품안전 등 복합 보건과제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함.
- ASHA 2026~2030 의 비전: 더 건강한 아세안 공동체를 향하여(Aspiring Towards a Healthier ASEAN Community)
- ASHA 2026~2030 은 아세안의 다양성 속에서도 회원국 국민의 건강과 웰빙이 공동의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됨.
- 건강한 아세안은 단순한 건강수준 향상을 넘어, 더 강한 공동체, 높은 회복력, 공동 번영 및 보다 나은 미래를 의미한다는 점이 강조됨.
- 아세안은 신·재출현 감염병, 공중보건 비상사태, 비감염성질환 부담 증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관련 보건위험 및 급속한 기술발전 등 복합적 보건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속적 지역협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ASHA 2026~2030 은 회원국 간 협의, 기술적 논의 및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우선과제와 협력방식을 조율하여 마련되었으며, 다음 4 개 아세안 보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행될 예정임.

아세안 보건클러스터	주요 내용
클러스터 1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 및 비감염성질환·정신건강 관련 과제 대응
클러스터 2	모든 위험 및 신흥 보건위협 대응, 감염병·환경위험·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대응 강화
클러스터 3	보건시스템 강화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 안전하고 양질의 형평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클러스터 4	식품안전 보장 및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 강화

○ (향후 계획)

- 제 17 차 AHMM 및 관련 장관회의에서 ASHA 2026~2030 의 이행 방향, 클러스터별 우선과제 및 관련 협력사항을 후속 논의할 예정.
- 아세안 회원국은 ASHA 2026~2030 에 제시된 우선과제를 각국의 보건정책 및 지역협력사업과 연계하고, 국가별·지역별 이행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사무국은 회원국, 관련 아세안 기구 및 협력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선과제의 프로그램화, 지식공유, 역량강화 및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 예정.
- 보건안보, 원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비감염성질환·정신건강, UHC, 디지털 보건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 간 정책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역내 공동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11 th ASEAN+3 Health Ministers Meeting
일 시	2026.9.10.(목) 오전&오후
장 소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참석자	이서현 연구원

○ (주제)

- 전체 주제: 「형평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시스템을 향한 건강한 아세안의 연대」
- 라운드테이블 주제: 「아세안+3 전반의 보건시스템 동기화: 혁신 확산 및 건강한 장수사회 대응」

○ (주요 내용)

- 2026년 9월 8일 개최된 사전준비 고위급회의(PrepSOM) 결과를 채택하고, 2026~2028년 아세안+3 보건협력 우선분야와 제 11차 공동성명을 승인함.
- ASHA 2026~2030의 출범을 환영하고, 인구고령화·비감염성질환·정신건강·감염병·항생제 내성·기후변화 및 디지털 전환 등 공동 보건과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 제 11차 ASEAN+3 보건장관회의는 2026년 9월 8일 개최된 PrepSOM 결과를 채택하고, ASHA 2026~2030에 부합하는 2026~2028년 협력 우선분야 및 공동성명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ASEAN+3 보건협력의 전략적·실행적 기반을 마련함.
- 참석국은 인구고령화, 비감염성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AMR, 기후변화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보건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
- 중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건강, 건강한 노화, 전통의학, 디지털 보건 및 다자적 보건교류를 중심으로 ASEAN+3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함.
- 일본은 고령화·인구감소 대응, 지역포괄지원체계, 디지털 기술 활용 및 ACPHEED 관련 협력을 중심으로 자국 경험을 공유하고 실천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한국은 건강보험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 AI·디지털 보건, 보건안보, 감염병 감시 및 건강한 장수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표명함.
- 디지털 보건과 AI는 보건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으나, 안전성·형평성·개인정보보호·사이버보안·책임성을 갖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ASEAN+3 협력은 국가별 제도와 역량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됨.

○ (향후 계획)

- 제 11 차 공동성명에 반영된 협력 우선분야를 ASHA 2026~2030 및 ASEAN 보건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화.
- ASEAN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신형감염병 센터, ASEAN 비상운영센터 네트워크, ASEAN 생물학적 위협 감시센터(ABVC), 현장역학훈련 네트워크 및 UHC 네트워크 등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협력을 강화함.
- 중국·일본·대한민국의 보건시스템, 디지털 보건, 건강한 노화, UHC, 보건안보 및 보건인력 개발 경험을 ASEAN 회원국과 공유하고, 공동연구·기술교류·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함.
- 회원국별 협력수요와 디지털·보건시스템 준비도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며 현지 적용성이 높은 혁신을 확산함.

⑤	3rd ASEAN – Republic of Korea Health Ministers Meeting
일 시	2026.9.11.(금) 오전&오후
장 소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참석자	이서현 연구원

○ (주요 내용)

- 국가별 보건의료 데이터와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강화.
- 의료 분야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규제·윤리체계 마련.
- 농촌·도서·원격·취약지역 주민도 디지털 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일차의료 중심의 기술 적용 확대.
- 보건의료인력의 디지털 역량과 각국의 데이터·AI 기반을 함께 강화.

-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격차를 만들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형평성 및 공공의 신뢰를 보장.
- 제 3 차 ASEAN-대한민국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
- 2026~2028 년 협력분야로 비감염성질환, 감염병·AMR·원헬스, 보건안보, 검사실 역량, UHC, 디지털 보건 및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
- 대한민국의 AI 기반 일차의료 전략 및 공중보건 빅데이터 역량강화 경험을 ASEAN 회원국과 공유.
- AI 와 디지털 보건의 적용은 국가별 디지털 준비도와 보건의료환경에 맞게 추진.
- 대형병원 중심이 아닌 일차의료·지역사회·농촌·원격지역 중심의 실용적 시범사업 확대.
- ASEAN AI 거버넌스·윤리 지침과 WHO AI 윤리 원칙을 실무용 공통 참고기준으로 구체화.
-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사이버보안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인간 감독, 투명성, 책임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는 AI 규제·윤리체계 강화.
- 대한민국은 ASEAN 의 디지털 보건 역량강화와 보건의료인력·데이터 표준·AI 기반 일차의료 협력을 지속 지원.
- 회의 결과는 ASEAN 사무국이 정리하여 회원국과 대한민국의 관련 focal point 에 회람하고 최종 승인.
- 2028 년 차기 ASEAN 보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미얀마를 환영함.
- 대한민국은 2026 년 10 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World Bio Summit 및 ASEAN-대한민국 관련 회의에 회원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함.

○ (종합 평가)

- 이번 회의에서 ASEAN 회원국과 대한민국은 AI 와 디지털 보건의 보건의료의 접근성·질·연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공감함. 동시에 기술 도입 자체보다 환자와 주민에게 실제로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것, 국가별 디지털 발전 수준 차이를 줄일 것, 농촌·원격·취약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포괄할 것, 데이터가 안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것, AI 가 의료인을 대체하기보다 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 국가 간 데이터 표준과 시스템이 연결될 것, 디지털 혁신이 UHC 와 형평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 등의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 회의는 "AI for all"이라는 방향을 단순한 기술 보급이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공평하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공동 목표로 해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ASEAN-대한민국 간 정책·기술·인력·데이터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함.

⑥	말레이시아 출발 / 대한민국 도착
일 시	2026.9.11(금) - 2026.9.12.(토)
장 소	쿠알라룸푸르 공항 → 인천국제공항
참석자	이서현 연구원

-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행안관, 연구원 귀국

② & ③ PrepSOMHD 11th APHMM, Preparatory SOMHD



④ & ⑤ 11th ASEAN+3 Health Ministers Meeting, 3rd ASEAN – Republic of Korea Health Ministers Meeting

